

News

부동산 담보 없어도 OK...작년 은행 기술신용대출 30% '경충'

조선비즈

국내 은행권이 지난해 중소기업에 제공한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1년 전보다 30%가량 늘어난 267조원으로 집계
5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해 말 잔액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38조71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계대출 증가율 5% 이내 묶일 듯...올해 신용대출 '바늘구멍'

연합뉴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 등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제시
약 5%를 써낸 은행도 있지만, 6~8%를 써낸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자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봤기 때문

백기사' 이사진 교체 앞둔 신한금융... 지배구조 재편 불가피

조선비즈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제일교포 사외이사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며 문제 제기를 한 가운데, 신한금융지주가 곧 열릴 이사회에서 이사진을 다양화할지 관심 증대

은행 등 판매사가 판매보수·수수료 정한다

조선비즈

기존에는 자산운용사들이 자사 펀드 판매를 목적으로 높은 판매보수를 제시하고, 은행 등 판매사들은 높은 판매보수를 주는 펀드만 골라 파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1)판매사가 판매보수를 스스로 결정, 2)투자자가 판매사에게 판매보수를 직접 지급

은행 이어 보험사에도 '배당 자제령'

한국경제

금융당국이 은행과 은행지주에 이어 보험업계에도 '배당 자제령'을 내려 지난 3년간의 평균 배당성향을 넘지 않도록 요구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환경 불안과 함께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및 건전성제도(K-ICS) 도입 등을 배당 자제의 근거로 제시

외화보험 판매량 급증... 3년 평균 73.2%씩 성장

조선비즈

보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까지 생명보험회사의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은 3조2,000억원 수준으로 최근 3년 연평균 73.2%가 증가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금전 수수가 미국 달러 등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납입 보험료를 해외 국채 중심으로 운용하는 구조

금융위, '개인 대주시스템' 개발 속도전.. 공매도 6월 재개 힘신나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통합 개인 대주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9월에서 6월로 개발 일정을 단축
금융위는 지난 25일 증권사 9~10곳 실무진과 가진 회의에서 대주 서비스 전산을 오는 6월까지 구축해줄 것을 요청

"나는 공매도가 싫어요" 재미들 공매도 반대 버스 운행

조선비즈

주식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공매도를 폐지해달라'는 문구가 새겨진 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운행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에는 1월 30일 청원 마감까지 20.6만명이 참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